Ⅰ. 연 혁
History

1. 연 혁 History 36

1. 연　　혁

1. 삼국시대

백제 문주왕 때(서기 475년) 군 이름을 욕내(欲乃, 浴川)라 칭했고, 당시의 읍은 현 죽곡면 당동리에 두었다.

2.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서기 757년) 곡성으로 개칭했고 그 예하에 지금의 순천시 주암 쌍암 일대인 부유(富有)현과 구례군 지역인 구차례(仇次禮)현, 그리고 화순군 동복면 지역인 동복(同福)현을 영속했다.

3. 고려시대

고려 초 승평군(昇平郡;현 순천시)에 속했다가 현종 9년(서기 1018년) 나주목의 속군으로 이속 되었고, 명종 2년(서기 1172년) 감무(監務)가 파견되었으며, 고려 말 공양왕 1년(서기 1389년) 왜구의 침입으로 읍이 함락돼 죽곡면 당동리 지역에 위치했던 읍치가 동악산 아래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4. 조선시대

조선 태종 13년(서기 1413년) 현으로 개칭했으나 정유재란(서기 1597년) 때 읍이 탕진돼 선조 30년(서기 1597년) 남원 도호부에 합속됐다가 광해군 원년(서기 1609년) 다시 분리 독립해 곡성현으로 복설됐다.

5. 근대초기

광무 3년(서기 1899년) 행정구역 명칭을 곡성군으로 개칭해 군수를 두었고, 서기 1914년 담양·구례·순천·남원 일부를 편입해 11개면 126리로 개편됐다.

1909년 옥과면 현내면이 창평군 옥산면으로, 입석면은 입면으로, 화석면은 화면으로, 겸방면은 겸면으로, 지좌곡면은 지면으로, 수대곡면은 수면으로 개칭되었다.

6. 현　재

1979년 5월1일 대통령령 제 9409호로 곡성면이 읍으로 승격돼 11개면에서 1읍 10면 126리로 개편된 후, 1983년 2월15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석곡면 운룡리가 순천시 주암면에 편입됨에 따라 1읍 10면 125리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